

希 西 歌 王 和 天 使 （ 二 ）

西 拿 基 立 匪 魁 王  
統 率 大 軍 荒 若 狼  
嘔 吐 狂 言 對 上 帝  
神 懲 就 到 總 沈 邨

Hezekiah and the Angel (2)

Senacherib was indeed shrewd.  
As a king with arms he was rude.  
He held God in ridicule, too.  
Judgement came right and it all slew.

히스기야 왕과 천사 (2)

산헤립은 비적들의 괴수였다.  
큰 무리의 군대를 통솔하고 왔는데 그들이 땅을 이리처럼 황무케 했다.  
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미친 소리를 내뱉었는데  
하나님의 징계는 곧 이르러 그들은 한 시각에 모두 몰살되었다.